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3년 12월 14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서부농기센터 교육훈련 우수기관상-12면	서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신문
○ 농업농촌정보-11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가격 호조 속 온라인상 비상품 유통 기승-5면	-	뉴제주일보
○ FTA 감귤 생산시설 지원 “신청은 신중히” -3면	-	한라일보
○ 제주 요소 대란 없다 “수급 상황 안정적” -6면	-	한라일보
○ 월동무 수확 개시-1면	-	뉴제주일보
○ 월동무 수확-4면	-	제주일보
○ 유채와 농민-6면	-	한라일보

(한라일보: 2023년 12월 14일)

○ 서부농기센터 교육훈련 우수기관상-12면



서부농기센터 교육훈련 우수기관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미실)는 지난 12~13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2023년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 경진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재배교육 교재 등 자료를 2.14배 향상하고 현장수요 위주의 과정을 편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라일보 12월 14일

(제주신문: 2023년 12월 14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7면

2023-50호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양파
 - 웃거름 1차 시비 :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 마늘
 -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 월동준비 : 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 : 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 브로콜리 : 애월읍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 생육촉진 영양제 및 비 날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 가을감자
 - 기상 및 비대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 ※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 : ~ 2024. 1. 15.
 - 신청대상 : 2024. 1. 15.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문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2.14. 제주신문 7

(제주일보: 2023년 12월 14일)

○ 농업농촌정보-11면

농업농촌정보

주요 농작물 관리 요령

▲양파 △웃거름 1차 시비 =10a당 요소 17kg, 황산가리 9kg - 극조생 12월 중하순, 조생 1월 상중순, 중만생 2월 중하순 △노균병 등 예찰 방제 필요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시 발병주 제거하고 적용약제 방제 △월동준비 =가물지 않을 정도로만 수분상태 유지, 웃거름 시비 △웃거름 2차 시비(12월 상순)=10a당 요소 12kg, 황산가리 10kg

▲브로콜리=애월읍 일부지역 검은무늬병 주의 △밀식되거나 생육이 저조한 일부 포장에서 발생 △생육촉진 영양제 및 비 날씨 이어질 경우 적용약제 살포 △수확중인 포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에 유의

▲가을감자 △기상 및 비대 상황에 따라 수확시기 판단 필요 △무름병, 역병, 나방류 및 총채벌레 등 방제 필요

▲만감류 출하전 품질검사제=2024년 1월 15일(월)까지 △신청 대상=2024년 1월 15일(월) 이전 한라봉, 천혜향 수확·출하 희망 농가 △신청 장소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한라봉, 천혜향 상품 기준 =당도 11.5브릭스, 산함량 1.1% 이하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760-7531~3).

12.14. 제주일보 11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14일)

○ 가격 호조 속 온라인상 비상품 유통 기승-5면

“감귤을 샀는데 수박만한 귤이 도착했어요”-“아주 작은 쓰레기 귤이 왔다”

가격 호조 속 온라인상 비상품 유통 기승

규격 외 상품 판매 민원 잇따라 제기
높은 가격 노리고 비상품 섞어 팔아
단속 11만3292kg 벌써 작년 2배 넘어

최근 A씨는 “쿠팡으로 감귤을 샀는데 수박만한 귤이 도착했다. 귤은 일정 크기 이상은 판매해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젓이 팔고 있다”며 행정당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같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감귤 중자를 구매했는데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쓰레기 귤이 왔다. 감귤이 12.14. 우리는 바가지 상술에 실망 뉴제주일보 5구했다.

올해 감귤가격의 역대급 호조 속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비상품을 구매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문 내용과는 달리 크거나 작고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을 받았다는 피해가 많다. 감격 가격이 높게 형성된 점을 노리고 비상품을 섞어 파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감귤 온라인 판매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비상품 의심이 들면 실제 구매해 조레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정에 통보한 결과 14건이 단속된 상태다.

전체적인 비상품 유통 단속도 크게 늘었다. 올해산 노지감귤 단속 실적은 지난

11일 기준 127건·11만3292kg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단속 물량 4만9073kg(152건)의 갑절을 넘어섰다.

현재 감귤 출하 물량은 약 20만t으로 생산 예상량(42만6000t)의 47% 수준이다. 통상 단속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진행되는 만큼 비상품 유통과 단속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상품 구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팝업 공지를 요청했고, 당근마켓은 이미 반영한 상태”라며 “지난달부터 감귤 유통 지도 합동단속반을 꾸린 후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비상품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한라일보: 2023년 12월 14일)

○ FTA 감귤 생산시설 지원 “신청은 신중히” -3면

FTA 감귤 생산시설 지원 “신청은 신중히”

중도 포기·철회 시 귀책사유로 3년간 지원 못 받아
관수·농산물운반시설 예산 집행률 60%대 수준 그쳐

FTA(자유무역협정)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농가가 사업 신청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도 포기나 철회 시 귀책사유가 발생해 3년간 지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관수시설 지원을 비롯해 원지 정비, 비가림하우스 설치 등 15개 사업에 국비·도비·자부담을 포함해 156억1800만원을 투입해 545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들 사업 가운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관수 12.14. 환풍기시설, 송풍팬 시 한라일보 3를 직접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일부 지원 대상 농가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221농가 중 35농가(15.8%)가 사업을 포기(6농가) 및 철회(29농가)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대상에서 탈락한 농가들이 이와 관련한 환풍기, 송풍팬, 보온커튼 등의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들로 파악되고 있다.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날씨와 생육 등에 따른 여건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있다.

실제 관수시설(사업비 1억5900

만원)은 37농가에서 26농가에 대한 지원만 이뤄졌다. 11농가(포기 3·철회 8)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 대상이 다른 후순위 농가로 전환됐다. 현재 이들 26농가에 대한 보조금 7770만원 교부가 결정됐지만 실제 19농가에 5310만원이 집행되며 집행률은 68.3%에 그쳤다.

농산물운반시설 지원도 8농가에서 보조금을 받은 농가는 4곳에 불과하고, 농가 2곳이 사업을 철회하는 등 예산 집행률은 62.0% 수준이다. 나머지 방풍망시설(22농가 중 포기 2·철회 2), 무인방제시설(67농가 중 포기 1·철회 7), 환풍기 시설(66농가 중 철회 6), 송풍팬시설(53농가 중 철회 4) 지원 사업에서 사업 포기 및 철회도 적잖은 실정이다. 이들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90%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이후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면 귀책사유가 발생해 향후 3년간 모든 분야의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며 “농가의 현재 실정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내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지난 10~11월에 이뤄진 상태다. 내년부터 키워 등 지원 품목 대상은 물론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한도도 기존 0.5ha에서 1ha로 확대된다. 자동개폐기 지원이 기존 천장 개폐기 지원에서 측창이 추가되며, 관수시설 지원 장비도 수동뿐만 아니라 자동 스프링클러, 자동 점적관수로 확대 지원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한라일보: 2023년 12월 14일)

○ 제주 요소 대란 없다 “수급 상황 안정적” -6면

제주 요소 대란 없다 “수급 상황 안정적”

비료 1개월치 재고 있고 생산업체 공급도 원활

교통분야 요소수 비축량도 충분 불법유통 차단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요소 대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주도내 요소 수급 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중국 요소 수출 제한과 관련한 정부와 업계의 동향을 확인하고 요소비료 재고량과 확보 현황 및 요소수 관련 교통 분야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도내 요소수 가격과 재고량은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요소비료 공급(판매)량은 연간 5044t이며 현재 재고량은 600t이다. 월평균 요소비료 사용량이 500여t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달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 상태로 도내에선 요소비료 관련 농가 사재기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요소비료 생산업체의 공급도 원활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공공·민간 부문별 요소수 비축량을 확인한 결과 주유소 49개소에서 정상 판매 중이며 현재까지는 수급상황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주지역 버스, 택시, 화물차 등 교통분야 사업용 자동차 8만7506대 중 51%인 4만4717대가 요소수 공급 대상이다. 도내 요소수 비축량은 12,149,980ℓ로 제주지역 요소수 **한라일보** 6,3596ℓ를 기준으로 할

때 1개월 사용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도내 준공영·마을버스 요소수 비축량은 6만7080ℓ로 역시 1개월 물량이 더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SK내트럭하우스주유소에 요소수 1만1000ℓ의 재고가 확보돼 있는 데다 추가로 1만9000ℓ가 입고될 예정인만큼 도내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제주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 차단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정 공급량 확보와 선제 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 요소수·요소비료 공급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비료업계는 비료용 요소(원자재)의 연간 수요량 37만t 대비 약 125%인 47만t을 확보하고 있으며, 질소질비료 완제품 재고는 3만t, 원자재 확보재고량은 12만t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요소 가격은 2년간 하향 안정화 추세며, 정부가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며 대체 공급망을 확보한 만큼 중국 수출 제한이 있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뉴제주일보: 2023년 12월 14일)

○ 월동무 수확 개시-1면



12.14.
뉴제주일보 1

월동무 수확 개시

13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월동무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일보: 2023년 12월 14일)

○ 월동무 수확-4면



월동무 수확

13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농민들이 월동무 수확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라일보: 2023년 12월 14일)

○ 유채와 농민-6면



유채와 농민

13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유채꽃을 배경으로 브로콜리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